

결핵의 끝자락엔 희망이 있었다

글_백종현(소설가)

● 군대생활도 건강하게 마쳤는데 20대 후반에 결핵을 만났다. 그것도 약이란 약은 모조리 내성이 있는 난치성 결핵균이었다. 어느 의사는 듣는 약이 없으니 치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내 곁을 맴돌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왜 내게 이런 몹쓸 병이 내려졌는지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가족 멀리 공주결핵병원으로 죽으러가는 심정으로 집을 떠났다. 결핵에 거의 무지했던 시기에 그나마 병원에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결핵협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은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고 삶에 대한 애착도 강해졌다. 서울의 'H' 병원을 찾아 두 번의 폐엽절제 수술을 받았고 나와 같은 난치성결핵을 치료했다는 호흡기내과 선생님을 만나 결핵은 완치되어 1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결핵은 아직도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결코 불치의 병은 아니지만 대부분 결핵을 쉽게 생각했다가 난치성으로 발전해서 평생을 고통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투병생활이 길어질수록 낮기도 힘들어진다. 결핵은 환자의 투병자세와 심신의 안정, 충분한 영양섭취, 규칙적이고 철저한 약물복용의 삼박자가 잘 이루어질 때 치료될 수 있다. 그리고 결핵이 무서운 이유는 재발인데, 치료 후에도 치료 당시처럼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치료 후에도 발병 당시의 생활습관이나 식생활습관으로 되돌아가 발병의 조건을 다시 만들어 주면 평생을 결핵과 함께해야 할지도 모른다. 결핵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려면 앞서 말한 생활습관과 식생활습관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닐까 한다. 자신감의 위축, 삶의 비관과 같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인체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결핵이 다른 병과 다른 것은 요즈음 신종 플루가 유행하는 것처럼 전염된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그로 인해 병마의 고통 외에도, 특히 가족간의 감염의 염려가 환자를 더 힘들게 한다. 1차 약으로 6개월만 치료하면 완치되는 1차 결핵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제 내성 결핵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병상생활이 길어질수록 본인 자신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게 되어 사회의 주변에서 그리고 음지에서 서럽게 생을 이어간다. 아닌 말로 불치의 암처럼 쉽게 죽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고통의 시간은 짧게 끝낼 수도 있 으련만, 아플 때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자신의 생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살아 숨쉬며 느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삶의 목 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통도 삶의 일부이다.

사람들은 병, 실연, 사업의 실패 등 여러 이유로 절망을 만난다.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병 과의 투병 중에, 혹은 그 사람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절망감을 느 끼게 된다.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본다면 절망의 순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절망감이란 주관 적인 개개인의 감정상태이므로 생각처럼 쉽게 그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오직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희망 뿐인데 희망이 불쑥 나타나지는 않는다.

실체가 분명한 희망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때 로는 허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허상의 희망까지도 기적을 만들어 낸다. 어린이가 꿈 을 먹고 살듯이 환자에게는 희망이 자양분이다. 운 좋게 외부에서 희망이 아침의 태양처럼 밝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장마철처럼 해가 뜨지 않는 계절에는 자기 자신만이 희망을 만들 어낼 수 있다.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보니 그 곳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으로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 당국과 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한다. 복지시설이나 근 린 생활 체육시설 같은 간접적인 국민 건강에의 엄청난 투자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부분에는 매년 인색한 예산이 배정된다. 매년 수만 명의 환자 발 생과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복지국가를 자칭하 는 선진 정부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하루 빨리 만성 결핵환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까지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주길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

이 글을 쓴 백종현 님은 자전적 소설 <수수꽃다리 사랑>을 펴내고 현재 활발히 집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